

꼭꼭 숨은 목포 세발낙지

‘목포의 명물’ 세발낙지가 품귀현상을 보일 정도로 잘 잡히지 않으면서 가격도 크게 올랐다.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어선을 타고 주나으로 바꿔 조업에 나서도 고작 10여 마리를 잡는데 그치고 있고

갯벌에서도 4시간 동안 10마리 이상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어획량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이처럼 낙지가 잘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올 여름 폭염과 고수온 현상으로 빨 속 깊이 숨어있기 때문으로 일부 어민들은 낙지잡이를 사실상 포기했으며 전문식당들도 개점 휴업 상태다.

가격도 크게 올라 중간 크기의 낙지는 1컵 20마리에 16만~18만원이며 세발낙지는 10만~12만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2배 가량 폭등했다.

목포 한 낙지 전문점 주인 김모(56)씨는 “낙지를 구할 수 없는데다



신안군 암해도에서 한 어민이 주낙을 이용, 낙지를 잡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웠던 텃에 낙지가 1m 깊이의 빨 속 까지 들어가 버려 낙지 잡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보름 정도만 기다리면 빨 속에 들어갔던 낙지가 밖으로 서서히 나오면서 어획량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갈치 뉘시배 ‘안전불감’

목포해경 정원초등 25척 적발

갈치 뉘시배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경경찰서가 지난 6일 밤 목포 평화광장 앞과 영암 방조제, 해남 별암리 앞 해상에서 갈치낚시 어선 180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16척이 정원 초과 등으로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밤에도 9척의 낚시 어선이 적발됐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적발된 어선은 정원을 초과하거나 낚시꾼들이 구명 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밤샘 낚시를 해 안전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일부 어선에서는 막 잡은 갈치를 안주 삼아 솔판을 벌이는 경우도 많고 낚시 초보자들이 많아 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수현 목포해경 서장은 “1차 단속 때 계도성 위주로 단속을 했는데도 또 다시 법 위반 어선이 적발됐다”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해양축제’ 운영권 싸고 폭력사태

목포예총·민예총 행사 주도권 다툼

제안공모업체는 목포시 상대 손배소

목포의 대표적인 축제인 ‘해양문화축제’를 둘러싸고 제안공모업체가 목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운영권 문제로 지역 예술단체간에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07년 해양문화축제 기획실무위원회 의도중 한국예술인총연합회 목포지부(이하 목포예총)가 무임금으로 예술 감독을 맡겠다는 뜻을 시장에게 전하면서

목포예총과 민예총 두 예술단체가 행사 주도권을 놓고 불성 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목포예총 측의 무임금 제안에 대해 민예총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목포예총 관계자가 민예총 김모씨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해 회의장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는 것.

그러나 목포시는 운영권 문제가 폭력사태로 번졌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

지 못한 채 수수 방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해양문화축제의 제안 공모업체인 씽크밸리는 “목포시가 축제대행사 선정 시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확약 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결렬시키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5천700여만원의 손배청구를 제기해, 오는 2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시민들은 “예술단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보이는 것은 목포 예술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 주체를 공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무안 우회도로 개통 국도 1호선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무안읍 성동리(8.9km)간 무안우회도로가 7일 개통됐다. 766억 원이 투입된 무안우회도로는 1997년 10월 착공, 9년 11개월 만에 완공됐다. 4차로인 우회도로 개통에 따라 시가지 교통 혼잡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운행시간도 10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최근 미주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섬드리합창단’이 9일 오후 3시(학생)와 오후 7시(일반) 두 차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귀국공연을 갖는다.

신안군 7개 섬 28명 어린이들로 구성된 섬드리합창단은 최근 미주 3개 도시(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에서 뮤지컬공연 ‘섬꾸러기들의 합창’을 마치고 돌아왔다.

미공연 마치고 돌아온

신안군 ‘섬드리합창단’

내일 목포서 귀국공연

특히 시애틀 권창호 총영사는 “이번 신안 어린이들의 뮤지컬공연은 자칫 여백을 놓치기 쉬운 한인 이민사

회에 작은 메시지를 던져 주었으며,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왔던 고국의 이미지를 다시 끼어보는 사진첩처럼 잔잔한 감동의 무대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공연은 모든 관객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지며, 학생은 신안교육청에서, 일반인은 신안군청에서 초대권을 배부한다.

/신안=조완님기자 wncho@

지역 단신

목포해역사령부 창설 60주년



해군 목포해역방어사령부(사령관 박정수)가 6일로 부대 창설 6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46년 20여명의 소수 인원으로 발족한 목포해역사는 60년이 지난 현재 2천여명에 달하는 병력과 수십여척의 함정을 보유한 장성급 부대로서, 작전구역이 제주해협과 여수에서 영광까지 이르는 ‘서남해역 수호자’로 발전했다.

사령관 박정수 준장은 “지역민의 성원과 사랑을 바탕으로 부대가 발전할 수 있었다”며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해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것”을 다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무안교육청 ‘혁신 워크숍’

무안교육청(교육장 권명)은 최근 강진군 성전면 월출 환경아영장에서 전직원(43명)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역량 강화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박승옥 변호사의 초기강연과 분임별 상호 토론을 통해 행정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 실천 방안 모색 및 교육혁신 내재화와 정착을 이루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권명 교육장은 “앞으로 1년에 1~2번씩 전 직원이 철석하는 자리를 마련해 진취적이고, 더욱 교육을 위한 마음자세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光 明 日 报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452-8535)	나 주 332-5544 (334-6969)
광 양 792-8111	해 남 534-5151	나주남부 374-4423
보 성 853-9700	완 도 554-6677	경 상 392-7000
순 천 746-8111	영 광 351-0055	영 암 383-8111
고 흥 833-9900	신 안 243-3758	광 칭 473-2340
녹 동 842-2121	진 도 543-0100	광 산 863-8822
구 레 783-8111	강 진 433-8355	고 청 564-1919
국 성 362-8111	합 평 324-8111	순 청 653-6155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택시!

그 멘션 그대로

25년 고객사랑!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금수장관 광호필·마리정희 우수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진정하고 소중합니다

다행히 예상과 예상과 예상과 예상

신선한 고급 택시... 깨끗한 택시로

제작하는 택시는 제작하는 택시입니다

제작하는 택시는 제작하는 택시입니다